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6.02.15)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95624)

<b>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위험)</b>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b>  <b>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b>
1	2	3	4	5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FCP I -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총수익뿐 아니라 높은 이자소득 달성을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 (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 02-3707-3400)									
모집(판매) 기간	계속하여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 조좌)					
효력발생일	2016년 2월 1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bglobal.co.kr)의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C-P	C-P2	S	S-P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	연금저축 계좌가입	퇴직연금 가입	펀드온라인 코리아로 가입	펀드온라인코리아로 가입 연금저축계좌		
판매수수료	납입금의 0.75%이내	납입금의 0.375%이내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	-	-	-	-	3년미만환매 시 환매금의 0.15%이내	-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500	0.250	1.000	0.500	0.600	0.500	0.250	0.18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0.10, 신탁업자보수: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								
	기타비용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총보수-비용	0.674	0.424	1.174	0.674	0.774	0.674	0.424	0.354	
	합성 총보수-비용	1.364	1.114	1.864	1.364	1.464	1.364	1.114	1.044	

<p>※주석사항</p>	<p>주1) 기타비용은 발생 시 지급되는 비용이며 이외의 보수는 매 3개월 지급됩니다.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2)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에서 부과하는 총 보수·비용은 약 연 0.69% (피투자 펀드 운용보수 연 0.65% 포함)입니다. 기타 비용 및 피투자펀드의 비용의 추정치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종류C-w,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매입 방법</p>	<p>·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17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p>	<p>판매 방법</p> <p>·17시 이전: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지급  ·17시 경과후: 5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p>
<p>기준가</p>	<p>산정방법</p>	<p>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p>
	<p>공시장소</p>	<p>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abglobal.co.kr">http://www.abglobal.co.kr</a>)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인터넷 홈페이지</p>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FCP I -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총수익뿐 아니라 높은 이자소득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투자전략

##### ①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FCP I - 글로벌 고수익채권 포트폴리오(이하 "피투자 펀드")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피투자 펀드는 미국발행인들 및 신흥시장에 소재한 발행인들을 포함한 전세계 발행인들의 고수익(High Yield) 채무증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총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투자합니다. 투자자산을 선정함에 있어 3가지 종류의 투자자산에 그 자산을 분산 투자합니다: (i) 미국기업발행인의 투자부적격등급 고수익 채무증권, (ii) 신흥시장 국가에 소재한 발행인들의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iii) 신흥 국가가 발행한 국가채무증서. 이외에도, 운용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종류 투자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피투자 펀드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펀드의 투자자산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펀드는 동일 국가에 총자산의 2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제한은 미국발행인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투자는 특별한 고려사항을 수반합니다.

피투자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및 미국외 기업 발행인의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는 채권, 채무증서, 어음(bills/notes)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채무증권은 투자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환권이나 워런트와 같은 주식의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신용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②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교 지수: 33%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Constrained(원화 헤지)/ 33% JP Morgan GBI-EM/ 33% JP Morgan EMBI Global(원화 헤지)

3. 운용전문인력

(2014.12.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경력
			기타 운용중인 펀드	기타 운용중인 자산	
유재홍	1970	상무/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8개	약 5,759억원	- 연세대학교 MBA <b>경력:</b> - 신한금융투자 FICC운용2팀장 (2010.5 ~2011.12) - KDB 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해외투자팀장 (2009.5~2010.5) - 엘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 (2008.5~2009.5) -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채권운용팀 (2002.7~2008.5)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2014.01.01 ~ 2014.12.31)	최근 2년차 (2013.01.01 ~ 2013.12.31)	최근 3년차 (2012.01.01 ~ 2012.12.31)	최근 4년차 (2011.01.01 ~ 2011.12.31)	최근 5년차 (2010.01.01 ~ 2010.12.31)
종류 A	3.64	7.15	18.45	1.97	16.28
비교지수*	3.21	-0.74	17.12	3.98	12.97

주1) 비교지수: 33%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Constrained (원화 헤지)/ 33% JP Morgan GBI-EM/ 33% JP Morgan EMBI Global(원화 헤지)

주2)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위험	투자신탁이 소규모 시장을 가진 비유동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 자산 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p>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가치, 기준 금리 또는 지수에 의하여 또는 이와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와 같은 숙련된 운용사가 신중하게 활용할 경우, 파생상품은 투자신탁의 운용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위험을 경감하며,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특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지만,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p>
채무증권 위험	<p>투자신탁의 채무증권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 및 통화 환율 변동에 따라, 그리고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변동합니다. 투자신탁은 고수익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가치하락 및 자본손실 실현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을 지니거나,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으나 그에 상당하는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은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보다 수익률과 시가 측면에서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p> <p>투자신탁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는 투자적격등급 미만 또는 평가등급이 없으나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가지는 고수익, 고위험 채무증권에 투자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으로 평가되는 채무증권은 "정크본드(junk bond)"라 하며, 보다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원리금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여기며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 능력에 대하여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으로서 이는 경제조건 악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하락할 수 있습니다.</p>

## 2. 위험관리

운용 자산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로 고객 보호를 목표로 위험 관리 지침을 두어 관리합니다.

### ①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에서 +/- 20%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 ①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②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③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한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제외)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령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소득으로 과세,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연금외수령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기타소득으로 과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 이연퇴직소득세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global.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global.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global.co.kr)